



2003년
12월 15일
제 64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행사·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회지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농협강원지역본부 2003년도 추수감사 연합예배

- 햇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4년째 이어져 -

농협강원지역본부 선교회는 한해 풍년 농사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11월 농협본부 5층 강당에서 농협 본부장과 많은 농협직원들을 비롯해 직장선교연합회원들,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햇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봉수 권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안원택 장로(농협선교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오승룡 목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농협 남측선교회원들의 특별찬송, 이영규 장로(연합회직전교회장)의 농촌과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 오원일 장로(도의회교사위원장)의 축사, 홍세표 부분부장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오승룡 목사가 축도하므로 예배를 마쳤다. 오곡을 진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후, 모든 손님들에게 첫 곡식을 나누는 의미로 농산물을 선물하므로 따뜻한 농부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풍년 농사에 감사하였다. 이날 드려진 헌금은 월드

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성서와 사역을 위해 모두 지원했다. 추수감사는 매년 가을 농협의 연례 행사가 된지 4년째를 맞았으며 이처럼 한 직장에서 공개적인 하나의 행사로 추수감사예배를 정기적으로 실천해내고 있다는 것은 보기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농협의 귀중한 사역은 성서와 운동과도 연계되는데 지난 2000년 손은남 당시 농협본부장이 성서화운동을 일으킨 '기관장 기도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되어 갔고 하나님께 주신 직장, 현재의 농협강원지역본부가 된 것이다. 그 다음해 허신 장로가 후임 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고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직장으로 확실히 뿌리내리게 되어 매월 11월 추수감사예배 때가 오면 도단과 기관장과 목회자를 초청해 추수감사예배를 더욱 아름답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갔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후임 본부장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추수감사예배에 정



감리교 제도의 변화와 전망



김기태 장로
기독교연합회 이사장
감리교 임원회의 총재, 창간회장
정 및 관현위원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광림교회에서 감리교 총회대표 770명이 모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총회 정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18년의 선교역사를 가진 감리교는 교단 대표로 총리사를 두었다가 현재는 전국 10개 연회에 감독을 두고 감리교의 영적 지도자로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임원총회는 감독 선거에 따른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강화하고 제관법과 은급법을 크게 손질하였으며 본부와 지방의 운영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감독선거를 제비뽑기로 하자는 8개 연회의 결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되고 연회 감독은 현행대로 교회를 담당하면서 임기 2년을 마치도록 하였으나 감독회장은 4년 전임으로 하여 교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가 끝나면 목사직을 떠나게 하는 (은퇴)제도로 바꾸어 명실공히 교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목회자의 양상을 위하여 교역자 수급 및 수련목회자(목사)고시 위원회 규정을 통치시켜 해마다 감리교 3개 신학대학에서 출원하는 500여명의 목사후보들을 수급하는 제도를 보완하였고 호남선교회를 신설하여 감리교 300만 총력전도 운동에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감독선거 제비뽑기 제도 부결, 감독회장 4년 전임제 통과
연회감독은 현행대로 교회를 담당하는 결의안, 임기2년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감리교를 발전시키려는 선교적 차원에서 임원총대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심의 의결한 결과이다. 하지만 만주 선교연회의 장 연회 승격, 미자립 교회 지원금의 유보, 본부 임직원 정년법 심의보류, 감독 및 감독회장제를 별도의 날에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 부결 등은 차기 임원회의의 과제로 남겨졌다. 감리교는 매년 1~2월에 지방회를 개최하고 4~5월에는 연회를 개최하여 10월에는 행정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연도에는(연년제) 임원회의를 개최하므로 감리교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은 총회 대표권을 갖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별히 행정총회에서는 감독과 감독회장을 신거함으로 총회대표가 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현행법상 목사들은 1500명 중 당면직 감리사총대를 제외하고 목사원 연금순으로 총대가 되며 동수의 1500명은 평신도 대표로 채우지만 당면직 연회평신도 집행위원과 여성대표를 제외하고 남은수를 장로 취임 연금순으로 총회대표를 선임함으로써 평신도 대표의 균형과 문제가 항상 문제시되어 임원총회 때마다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 이번 총회에서 일부 수용하였다.

총회대표 3000명, 전국임원회 선교연회총대 대표로 참가
목사고시, 학원선교사마중 선교연회 신설 등 제도 변화의 의결

총대의 노력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전국 및 연회의 남·여선교회장, 청장년선교회장과 전국교회연합회총대장이 총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감리교는 앞으로 직능별로 참여의 폭이 넓어져 교단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솟게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교단 원로와 전국 장로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동력연령을 현행 2~3배씩 높여 감독은 55세부터 68세까지로 감독회장은 60세부터 66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둔 것과 감독회장 전임을 위하여 교단원로들을 사임하여야 하고 임기만료 후 은퇴하는 문제 등으로 논쟁이 고조되었는데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감독회장 출마를 기꺼워하는 현상도 예전보다 선거법 강화로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발은 1인이더라도 할 수 있게 함으로 선거후 부정선거 고발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으며 개교회와 교회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감리교는 이번 임원총회를 통하여 가장 많은 법안 내용을 통과 시키면서 통과된 법안 공포와 "감리교 교리와 장정" 편찬이 진행되고 있다.

▶임원총회 부결 및 보류 법안 (감독선거 제비뽑기) (감리회본부정원법) (목회자 세습관련법 조항) (미자립교회 생활보장제(원회규정) (농촌선교회) (농촌선교회) (목사)고시(원회규정) (국회선교사관리규정) (선거법 개정) (재판법 개정) (은급법 개정)

춘천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오승룡목사)는 지난 11월 30일(주일) 오후 5시 춘천의 중심가인 중앙로 로타리에 위치한 기업은행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거행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인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과 주님의 사랑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

형 트리를 환하게 밝혔다. 교차로에 줄지어 선 차량들과 왕래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진행된 점등예배는 순복음춘천교회 김주찬 목사의 특별기도와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악단의 아름다운 특별연주와 찬양이 있었으며 회장 오승룡 목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부장로교회 임신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춘천 기독교연합회 제8대 임원진

춘천 기독교 연합회는 2004년 임원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연중 행사계획: 신년교례회(2004년 1월 3일 오전 11시 월대비전) 3.1절 연합성회(2004년 2월 29일 저녁 7시 동부장로교회) 부활절 연합예배(2004년 4월 11일) 5월 중 가정의 달 행사, 10월 선교대회 및 정기총회, 성탄트리 점등식(2004년 11월 28일 오후 5시 중앙로 로타리) 삼천봉 15사단 트리점등식(2004년 11월 28일 오후 4시) ▶회장: 오승룡 목사(춘천성교회) ▶부회장: 유진형 목사(남춘천성교회) ▶길

동회 목사(춘림성교회) ▶한주석 장로(광정성교회) ▶총무: 지용찬 목사(은혜성교회) ▶부총무: 송문식 목사(은혜성교회) ▶유소선 목사(동춘천성교회) ▶강철수 장로(청대성교회) ▶서기: 조영준 목사(예광침례교회) ▶부서기: 정석호 목사(성산순복음교회) ▶회계: 김태권 장로(동부장로교회) ▶부회계: 김성숙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감사: 고영일 목사(푸른성교회) 임원진 인수 집사(춘천침례교회) *문의: H.P. 011-372-6200 / 241-4316 송무 지용찬 목사

CBS소년소녀합창단 제6기 단원모집

CBS춘천방송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함께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과 폭넓은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CBS 소년소녀 합창단 제6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CBS 소년소녀합창단은 2003년 해외선교 공연 중 '호주 뉴질랜드 교회 및 찬양에 공연,에서 뉴질랜드 황가파라오아 초등학교(Whangaparaoa Primary School)와 자매결연으로 서로 방문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 갖게 되었습니다. CBS방송선교를 통한 사역에 많은 초등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대상: 초등학교 2학년~5학년(2003년 현재)
- 모집인원: 00명
- 집행방법: 서류전형 및 오디션
- 시창(당일 악보제시), 찬양곡 중 자유곡 1곡(본인이 달일 악보 2부 지참)
- 오디션일시: 2003년 12월 20일(토) 오후 5시
- 오디션장소: CBS춘천방송 5층 예매실
- 접수처: CBS춘천방송 송무팀 TEL.255-2001



CBS 소년소녀합창단 제7회 정기공연

뉴질랜드 남십자성예술단 초청 연합 콘서트
[Southern Cross Korean Performing Arts Group]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GUEST출연: 뉴질랜드 남십자성 합창단

Mission Perspectives(MP)

전략적 관점(15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



▲ 사진은 춘천선교대회 중 목회자 세미나와 저녁집회 광경이다.

우리는 MP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선교에 대한 관점들을 공부했다. 성경적관점, 역사적관점, 문화적관점, 전략적관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모든 날 동안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목격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온 세계에 뻗어 바다를 덮을같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전세계적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우리는 '파송자'라는 중대한 역할과 '동원'이라는 특별한 사역에 대해 배울 것이다. 앞에서 나온 것들과 같이 모든 종족 안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번과에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결단력 있게 사는 것은 희귀하거나 터무니 없는 소명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열방의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기쁘게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이라는 용어를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놓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세계적인 비전을 간직하며, 세계적인 비전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복 선교 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장소는 부차적이다. 나가지 못했다 해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는 앞의 성경적 관점에서 더 다루었지만 우리의 기도가 곧 선교임을 이미 배웠다. 그러므로 월드 크리스찬은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stand in the gap)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들이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삶속에서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직접 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의 동원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문화적이기 때문이다.



북한 어린이들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를...

적 전투이고 삶이다. 할렐루야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전시생활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전략적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열방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전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곳에 남은 제화를 배분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거룩한 용도를 위해 따로 매어놓은 헌신이 필요하다. 풍요로움이 있다할지라도 거기에 헌신이 없으면 독이 된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의 혜택은 제한적인 것이다. 일례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예마다 선교기관에 거의 20억 달러를 헌금하는데, 그 금액은 그들이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에 소비하는 돈의 1/4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하지 않고 겸손하게 음식을 먹기로 한다면, 선교에 지금보다 적어도 5배는 더 더러면서 다른 생활수준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룩한 파이프 라인이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을 꼭 선교사로 확증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열매 맺는 선교사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하는 데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적어도 열명 이상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선교훈련은 꼭 나가는 선교사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던지 보내던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내는 자로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과 동원사역이다. 동원은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 일에 비전을 갖게 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전문적인 보법이다. 우리는 보내는 자로서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다. 선교 훈련자, 선교 목사, 선교 상담가, 행정 담당자, 연구자, 동원자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밖에 헌금과 기도로 보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인적, 물적 잠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깨워서 선교에 협력할 수 있게 한다면 교회는 선교의 모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를 위한 선교훈련과 춘천선교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춘천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는 네트워크시대라고 한다. 개인과 개교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무런 옵션없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그 역량은 극대화된다. 교회와 교회,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전략적으로 함께 협력할 때 선교의 좋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최영모 목사
MP코디네이터
(갈릴리(갈리교회))

뉴질랜드 오uckland 기독교찬양예술제 대성황

- 총괄기획한 조숙희 집사와 신종철 장로가 이뤄낸 값진 결실 -
- 55개 교회 목회자들이 적극 참여 - 홀리클럽 창립 위한 첫 걸음 -



신종철 장로



조숙희 집사

뉴질랜드 한국기독교선교인회(대표 신종철 장로)는 지난 11월 29일 저녁 7시 Victory Christian Church에서 오uckland 성시화를 위한 기독교찬양 예술제를 개최했다. 3천석 규모의 공연장은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으며 개막시간 30분 전에는 1천여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주차장 문을 닫는 레프팅까지 벌어진 교인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이번 공연에는 CBS소년소녀합창단, 한국연예인선교단, 남십자성예배단, 뉴질랜드Royal Navy Band, 뉴질랜드구세군악대 등 출연진의 수가 150명이 넘고 다양한 구성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대형 행사였는데 한국홀리클럽연합회와 한국연예인선교단은 오uckland 성시화를 위하여 무료입장하도록 배려했으며 많은 교인들과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참석할 수 있었다. 실내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장엄하게 태극기를 들고 등장한 이태라 국제찬양운동선교단의 신장에 따라 교인들이 한곡으로 "예수"를 불렀으며 성가곡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합창하며 찬양제 첫 무대의 막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탈렌트 김민정, 장신일씨의 소개로 나온 조지 우드 노스오어 오uckland시장과 시 입원자들은 한 교회 55명의 목사와 함께 공동의식을 통해 성원을 보냈다. 기존의 성가제와 달리 한국적인 전통 국악과 무용을 찬양에 이용한 독특한 공연을 선보였는데 화관무와 부채춤, 진도북춤, 오고무, 강고춤 등 전통무용과 가아춤 병창, 강원도아리랑, 해주아리랑 등으로 찬양곡으로 색다른 분위기와 또다른 감동을 전했으며 이에 관중들의 박수갈채는 끊임 없이 울렸다. 남십자성예배단을 비롯한 뉴질랜드 현지 찬양단과 밴드의 공연 또한 훌륭했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세제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CBS소년소녀합창단(단장 신종철)은 "sing out of a song" "나는 알아요" 2곡을 합창하고 공연 마지막 무대에 재등장해 관중들과 한아름이 한곡소리로 어우러져 "도라지" "강강술래"를 합창했다. 긴시간 공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던 교인들은 폐막을 아쉬워했고 마음속 깊이 오uckland의 성시화를 염원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동안 삭막하기만 했던 교인사회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성시화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조숙희 집사와 신종철 장로의 노고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1998년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독교찬양예술제를 개최하였던 조숙희 집사는 춘천홀리클럽 총무직과 춘천성시화지도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신종철 장로의 후원으로 이번 행사를 총괄기획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구성의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조숙희 집사는 이처럼 많은 수의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인들에게 감사인사를 받을 때 마다 부족한 상황들이 연상되어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 든다며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또한 2004년도에는 성곡을 통한 기독교 전도를 기획중에 있다. 이번 오uckland 기독교찬양예술제는 교인사회의 응집력을 확인한 것 뿐만 아니라 오uckland 지역 55개 교회의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해 홀리클럽 태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성시화를 이룰 날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그 가치가 크다고 하였다.



▲ 지난 10월 26일 오후 7시 평화리교회(한글 담임목사) 대성전에서 개최되었던 춘천기독교찬양예술제(한글)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모습

건강한 가치 실현과 실천적 삶을 모색하는

기 독 포 럼

☆☆ 성탄문화 바로 세우기 ☆☆

【취 지】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백과 헌신을 통하여 사람과 나쁜, 평화 공동체의 기독교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독교인 운동체로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삶의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독교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특히 성탄문화의 외국은 삼각한 지점에 이르렀다.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은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조차 성탄문화의 왜곡이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성탄의 참 의미를 회복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실천적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예수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형성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입 사: 2003년 12월 19일(금) 오후 4시

★장 소: 춘천YMCA

주최: 춘천YMCA, 춘천CBS

후원: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문의: 신명덕 사무총장, 이현영 간사(255-1008)

TEL: 033-255-1001/1009 •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849번지

춘천 YMCA

① 주제: 성탄문화 바로 세우기

② 발 제

● 성탄문화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 이재영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무)

③ 토 론

- 바람직한 성탄문화 회복을 위한 교회 역할과 과제- 이정배 목사(문의교회목회)
- 성탄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사회역할과 실천과제- 지용환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총무)
- 성탄문화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활성화 방안- 심일환 지부장(예수전도단 춘천지부)

④ 전체토론